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1. 27.(목)

■ (언론 동향) 2022.1.17. "kotra해외시장뉴스" 보도

○ 2022년 중국 수출입 관세 방안 < 대외수출 >

- 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 등 106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 부과
- 중국 정부의 원자재 수출 통제 대비해야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수요와 산업발전현황, 정책 방향, 국제 협정 등에 따라 2022년 수출입 관세 조정방안과 2022년 수출입 세칙을 제정,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중국은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6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황린(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磷), 크롬철, 규소철, 정련되지 않은 동(구리) 등 7개 품목은 더 이상 잠정 수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올초부터 수출관세가 인상된 품목은 황린(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磷), 정련되지 않은 동(구리) 등 2개이다.

<잠정 수출세율 적용에서 제외된 품목>

연번	HS 코드	품목	수출관세 %	2021년 잠정 수출 관세율 %
1	2804.70.90	황린(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磷)	20	10

[자료: 2022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 요소 및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 지속 시행

작년 10월 15일부 변경한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품목의 수출 검역 관리방식은 새해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즉 요소 등 품목은 2022년에도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를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1.10.15일부 수출 규제 강화한 29종 비료 품목(HS 10단위 기준)

- 비료용 염화암모늄 (HS 2827.1010.00)
- 질소비료(HS 3102) 중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슘 비료 등 (HS 3102.10.00.10, HS 3102.10.00.90, HS 3102.30.00.00, HS 3102.40.00.00, HS 3102.60.00.00, HS 3102.80.00.00, HS 3102.90.90.00)
- 인산비료(HS 3103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칼륨비료(HS 3104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HS 3105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 공급부족으로 시행했던 수출세 인상, 수출관리강화 조치들은 올해도 계속된다. 원자재 수급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1. 27.(목)

불균형에 의한 가격 급등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짐쳐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희토류, 희귀금속, 광물, 에너지자원 등 수출관리대상품목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규제 심사 강화 등 방식으로 수출물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대중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의 수출상황, 가격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

○ 2022년 중국 수출입 관세 방안 < 수입(대중 수출) >

<2021년 대비 증가한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연번	품목(HS 2단위)	품목 수	주요 품목
7	비료 (31)	1	순염화칼륨

[자료: 2022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요소·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 지속 적용한다.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옥수수·쌀·설탕·양모·카드한 양모(Carded wool)·면·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율,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왔다.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이다.

- 전망 및 시사점

올해도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 산업고도화, 녹색성장을 위해 소비재, 하이테크 관련 품목, 자원소모형 제품에 대해 저관세를 적용한다. 또 탄소중립화에 따라 철강 등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낮췄다. 자국 내 철강 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 탄소중립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정책 방향인 만큼, 향후 관련 품목의 수입 관세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CCPIT연구원의 자오핑(趙萍)부원장은 중국 전반 관세 수준이 지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FTA인 RCEP 발효와 더불어 무역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관련 제품 HS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수입 관세율은 중국내 수급, 산업발전 현황 등에 맞춰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시장 수급동향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수출전략 조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 (언론 동향) 2022.1.27. "kotra해외시장뉴스" 보도

○ 인도네시아, 국내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수출입 제한 정책 발표

- 산업구조 고도화, 자국산업보호, 친환경 등 국내 산업 수요 우선 충족을 위해 관련 품목들의 수출입 제한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 안정 등 국내수요를 우선 충족하기 위한 수출입 제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년 4월 1일 수출입에 대한 무역부 개정령 18~20호 법령도 그 중 하나이다. 해당 법령은 제정일로부터 228일 뒤인 11월 15일 정식 발효되었는데,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해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새롭게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과 자원 안보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들을 통해 혼재된 규제와 시스템이 통합된 부분도 있지만, 수출입 품목 규제가 확대되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수출입 금지(제한)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 18호 주요 내용

이번 법령을 통해 기존 3개로 규정하던 물품 수출입 금지 법령이 하나로 통일됐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측면에서 보면 6개 항목 275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기존 4개 항목 39개 품목에서 확대됐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료와 특정 철강 제품이 수출 금지품목으로 새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광물 품목 수출 제한이 대폭 확대됐다.

3. 시사점

먼저 새롭게 규제된 수출 제한 항목을 살펴보겠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정부 보조 비료, 철강 슬래그 등으로 2021년 11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누적 수출액은 7억 4천만 달러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는 약 4.2백만 달러 규모가 수출돼 19위(점유율 0.6%)를 기록했다.

새롭게 수출이 제한된 항목 중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요소 비료(3102.10)로 같은 기간 수출액의 99%인 4.2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수출이 금지된 요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요소 비료 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요소는 무역부 사전 수출승인(PI, Persetujuan Ekspor)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다.

<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